



열린 마당

불교계가 적극 앞장서자

장묘제도



◇ 삼천리 금수강산이 묘지에 직설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부와 신문의 과시적인 호화분묘는 규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영남공원과 남골묘 남골당 등이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고계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한마음선원 금강지원 영남공원.

사설

더이상 공론에 머물수 없다

우리사회가 당면한 여러가지 문제 중에서 시기를 늦출 수 없는 일이 장묘제도의 개선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도 불구하고 매년 여의도만한 넓이의 국토가 묘지로 전용되고 있다는 관계기관의 보고가 있다.

매장제도의 폐해는 단순히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후손들이 삶의 터전으로 삼아야 할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이라니와 돌실주의 풍조의 광배속에서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묘지까지 파급되는 현상을 유발하게 될 우려도 있다.

옛부터 장례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었다. 크게 수장(水葬) 입장(林葬) 매장(埋葬) 화장(火葬)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우리 민족은 주로 '매장과 화장'을 이용했다. 매장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어 선

사시대까지 그 시원을 소급할 수 있다.

특히 유교가 국시로 자리잡은 이 조 이후는 매장이 보편화 되었다. 유교의 가르침 중에서 '신체 발부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므로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는 효경의 가르침이나 사악아서 잘 봉양하고 돌아가시면 유택에 잘 모시는 것이 효도의 끝이라 강조한 주자가례의 영향이 크다고 할 것이다.

현재 매장제도를 결사적으로 주장하는 계층도 유교적 신념을 고집하는 사람들도 알려져 있다. 이 시점에서 그들의 신념이 그릇되었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시비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시대의 흐름과 변화된 국민정서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화장제도는 불교의 전래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었다. 불교는 인간을 정신과 물질의 집합체로 간주한다. 따라서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의미한다. 죽은 이후의 육신은 단지 지·수·화·풍의 집합체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이에 시신을 금수에 공양하는 입장 혹은 수종의 물고기로 방으로 공양하는 수장 등도 활용되었다. 그러나 석가모니부처님께서는 사후의 장례에 대한 질문을 받지 전문성왕의 예법에 따라 화장하라고 하였다. 이후 화장은 불교의 대표적 장례법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불교의 영향을 받아 삼국시대부터 고려 말까지 화장이 보편화 되었었다.

장묘제도는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다. 매장제도는 반영구적으로 국토를 점유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화장은 전세계적인 장법이

되어 있다. 유교의 종주국인 중국도 대부분 화장을 채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도 화장이 대중화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관계 당국의 과다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결정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 이익집단의 반발에 주저하다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정책이 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죽으며, 죽으면 자연으로 회귀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자연은 모든 사람의 것이며, 특정한 사람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좁은 국토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항구적인 민족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전국도가 묘지로 바뀌기 전에 관계 당국의 슬기로운 정책이 시행되길 촉구한다.

죽어도 묻힐 곳 없다...탑공원 바람직

편집국에서

1993년말 현재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분묘수는 약 1천 9백여만기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면적은 약 1천 km²로 전국토면적의 1%에 해당한다. 이는 산자의 거주공간인 주거지역의 절반,생산공간인 공업지역의 3배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면적이다. 또한 매년 약 20만기의 분묘가 늘고 있으며 여의도만한 면적에 해당한다.

이처럼 날로 늘어나는 묘지로 생활공간이 줄어들고 국토가 황폐해지는 등 국민생활에 문제점이 드러나 수년전부터 장묘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장묘제의 개선안은 남골제 실시가 실질적 대안으로 이에 대한 여러가지 운영방안이 정부와 장묘전문가들에 의해 모색되고 있다.

특히 불교계는 남골제가 전통장례로 실시되고 있어 오래전부터 현상에 맞는 영탑, 남골공원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마음선원 금강지원

은 고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영남공원을 운영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5년부터 2천여평의 부지에 영남공원을 조성, 이미 6백여기의 영탑이 들어서 새로 부지를 찾고 있다. 한마음선원의 영탑은 오층석탑으로 기단에 서랍식 유골함이 있어 최소한 16구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다. 이외에도 대한불교진흥원, 학도당,만발회등 불교계사찰,단체에서 영탑 공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률적 제한과 지역이거주의로 유보된상태다. 최근 서울 보문정사가 임곡군에 40만구의 유골을 안치할 예정이다. 보문정사는 '후손에게 산소없는 깨끗한 묘를 돌려주자'는 취지로 남골공원을 추진,남골방법과 불안 방법으로 실용신안 의장특허를 받아 놓았다.

이외에도 전국의 남골당 44개소가운데 일부를 불교계에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화장장은 45개소로 총 1백21기의 화장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년간 총화장 수는 5216천구로 이 가운데 사산아,개장유골등을 제외하면 사망자의 19.1%에 불과하다. 이는 일본의 97%에 비해 67%정도, 미국의 80%정도, 프랑스의 72%정도인 것으로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매장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화장기회는 유교적 전통뿐 아니라 오래전부터 열려온 자, 전염병자의 시신을 화장 처리한 것이 결정적 원인으로 알려져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근래에 가지 이어져 화장제에 대한 아려는 있으나 실행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서울거주 5백만 명을 대상으로 '묘지제도의 개선안'에 대한 설문조사(서울시서치, 92년 6월조사)에서 현재의 매장제도를 원하는 (28.3%)보다 화장제도에 대한 선호도가 응답자의 30.1%로 화장제가 국민적 풍토를 형성하고 사회적 호풍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제는 위생적인 메다 묘목을 최소할 수 있는 화상의 방법으로 트지않아야 무질한 우리나라에서는 선민의 여지가 없는 모범방식이다. 이제 장묘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의가 필요치 않은 것이다. 그동안 장묘연구회나 묘지정리위원회 관련단체는 물론 정부도 세미나,공청회를 통해 시안부묘지제,가을 남골묘지,남골당 등 모든 대안을 제시해 놓았다. 이제 정부가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적극 추진해 국민들을 인도해 주어야 한다. 특히 고령시대가 내리면서 화장제의 정착을 위해 불자들이 앞장서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전문가의견

사회지도층 솔선·범국민적 운동 절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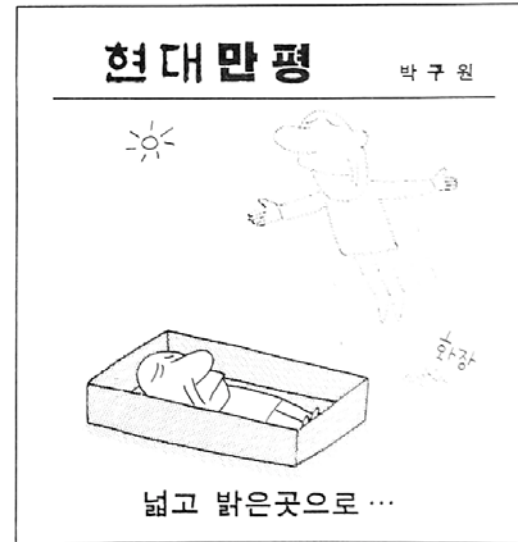
한국의 묘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상의 묘소를 관리하는 정신(한국적 가족제도)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국토이용 효율화 및 현대 산업사회에 맞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묘지정책은 지금까지의 잘못된 제도에 집착하기보다 앞으로 조성되는 묘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수립되어야 하고, 화장 또는 매장의 장례 방법이나 묘지 평수 및 관계법령 개정이라는 소극적·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범국민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기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결국은 적극적·능동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첫번째는 우리나라 묘지의 약 75%가 규제하기 어려운 개인·종중·분중 묘지이므로 이

묘지가 불화·호화·무언고 분묘로 바뀔 수 있는 소지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도록 범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두번째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공설묘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공평하고 기존의 사설 묘지 제도의 장치를 마련하여 주민의 사정에 맞도록 취사선택해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묘지의 평수는 현재 국립묘지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신분에 따른 평수 차이를 과감하게 도입하여 장군 묘역의 경우 8평으로 줄이고 개인 묘지도 분봉을 포함하여 묘지 평수를 6평으로 통일하고 장기적으로는 개인묘지를 가족·종중묘지로 통합하여 이용하

도록 유도해 나아가야 한다. 세번째는 화장장 시설을 일본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도록 현대화하고 남골당 시설도 불교계의 협력이나 민자를 적극 유치하여 주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사한 부 매장제도는 전국의 모든 묘지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연구자가 원하는 경우는 계속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열어두는 것이 합당하다. 법률적·행정적인 측면에서의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과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및 범시민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네번째는 묘지문제를 해결을 위해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의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국민적 명절 기간을 통해 매장제도의 한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

이다. 또한 국토의 효율적 관리란 측면에서 장묘전담 행정조직을 구성하거나 대학에 관련 학과를 설치하여 연구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이다. 일선행정기관에 없으므로 시(군), 구에 가장 장묘행 정계를 설치하여 대민봉사를 전담하거나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서비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의 학과 설치도 동일한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번째는 학교교육, 종교단체의 교육,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계몽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인 데 장묘제도는 특정 종교의 교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일괄적인 시행이 어려운 점이 있다.

김태복 (중부대 교수)



수맥

발명 특허원 제 2273호

02-649-1781

02-645-8180

02-645-8180

選外特許 續狀發熱 使用

수맥차단, 이제 안심하고 주무십시오.

수맥의 유허파는 과학적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유허파로부터의 보호는 과학적인 기술로 해결해야 합니다. 안파메트는 과학적이고 기술입니다.

안파메트는 수맥의 유허파로부터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수맥의 유허파에 대한 진실을 다시 알려드리고, 이는 바를 실현하고 유익함을 나누는 데 '자상'은 지극심을 느끼며, 다음과 같이 수맥 차단용 신제품을 선보입니다

최신 기술을 동원하여 정성을 다하여 만들었습니다. 품목을 다양화하고 품질을 혁신적으로 높였습니다.

대리점 및 특판사원 모집

- 소자본으로 높은 소득 보장합니다.
- 정직한 상품을 정직하게 판매합니다.
- 수맥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 환영합니다.

모집지역 • 전국 시, 군, 구 단위 지역

조건 • 보증금 없음 • 초도 상품대 가능자

• 영업사원고용 가능자

문의처: TEL (02) 649-1781, FAX (02) 645-8180

수맥차단효과 원리인 효과와 뛰어난 효과를 다변 합니다.

비아이피 골드세트

세트당 수맥차단기 ₩ 1,310,000

규격 D 140 × 200 Cm

소재지 ₩ 650,000

수맥차단효과 원리인 효과와 뛰어난 효과를 다변 합니다.

골드 키트

규격 150 × 220 Cm

소재지 ₩ 705,000

수맥으로부터 가족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안파메트

규격 D 140 × 200 Cm

S 100 × 200 Cm

소재지 ₩ 248,000

S ₩ 218,000

이름 없는 수맥차단기 ₩ 450,000

건강침구에 수맥차단침구가 필요한 이유

에 이르기까지 품질 자체가 이미 청상 전문 업체의 일반 수준을 훨씬 넘어선 최상품으로 각종 방기 시작했으며, 많은 격려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 수맥은 임산부와 산모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 어린이의 경우 특히 민감하게 영향을 타므로 차고나면 걸기쉬는 등 매우 위험하다.
- 수맥위에 잠자간 기거하는 경우, 신경통, 고혈압, 당뇨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 수맥은 체에 정전 기류가 안되고 선풍해한다.
- 지진때에 오인된 가족에 살인 만안들이 높다. - 구 스타프의 지진류로 인한 암발생
- 천대의 위치를 바꾸거나 (층간, 열매를린 등을 기술적으로 장치하여) 지진류를 피하면 안된다. - 독일 볼프라우트 하우젠 도립병원의 비르켈마호의 연구
- 수맥의 영향은 지상의 생물체 뿐만 아니라 지은 집에 균열을 만들고, 천대의 성장조차 방해할 정도로 파괴적이다.
- 현대의학은 배내기형의 배원인을 부인들의 질병이나 악몽을, 상병이다 진단하는 경우가 있으나 수맥이 관계가 된다.
- 시중시내 모 선배부자유자 육이원에서 전철한 원아 90%가 수맥을 타는 체질이다. - (수맥과 풍수)에서
- 애부터 산소의 명암조건으로서 수맥을 피했다.
- 장수촌으로 소문난 지역은 대부분 수맥이 없다.

수맥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에

- 침을 옮기면 건강이 회복되는 경우 대부분 수맥을 피했기 때문이다.
- 중풍, 고혈압환자는 침술의 수맥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 우원이 많은 집안, 도깨비잡이 불리는 집가는 수맥 때문인 경우가 많다. - (수맥과 과학)에서
- SBS-TV 94년 4월 17일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 수맥의 실상이 방영된 바 있습니다.

명품자성기업

서울시 강서구 등촌2동 513-21

소재지 보소설 : T(02) 649-1781, F(02) 645-8180